

다산포럼

경제 위기 극복할 정치리더십을



김 태 히  
다산연구소장

경제 위기다, 아니다, 엇갈리긴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우울하다. 성장을 호언하던 이명박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2%로 떨어지더니(김대중정부 5.3%, 노무현정부 4.5%), 현 정부에서는 3%대도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우리 경제 수준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분배를 이루는 논거로 성장을 말할 수 없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도,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멈출 수 없다. 경제의 외형적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이 과제다. 최경환 경제팀의 등장 이후 경기부양책을 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세 나랏빛은 급상승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19일 “2015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D1)는 595조 원 정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보도) 이는 3년 전인 2012년 말과 비교하면 152조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가계 부채 잔액이 1207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상 최고치였다. 전년도에 비해 약 122조 원이 증가했다. 3년 전에 비하면 243조 원이 증가했다. 청년실업률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원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상승곡선으로 바뀌어 2015년엔 9.2%였다. 또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청년실업률 12.5%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662만 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13.1%다. 2030년이 되면 2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난해는 약 18명이었는데, 2040년엔 약 57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갈수록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각 경제 주체의 효율성 추구가 국민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경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 리더십의 몫이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유능한 정부가 장기적 안목의 기획과 적절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 경제 발전의 전제이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인 개발독재도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그 역사의적 경험이였다. 정경 유착과 부패가 경제 외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경제 주체의 창의성을 억압해 경제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경제 실패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정권은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언론과 권력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국민은 좌절하고 불화한다. 분열과 배제를 충동하는 극단적 세력이 등장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는 분명 의미 있는 것이었다. 선거예만 그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제

민주화와 민생 이슈는 이번 총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의 기로에서 민의를 대변할 의원을 어떻게 뽑느냐는 향후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결정이다.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제도적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국회의원회와 국회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의를 최대한 비례적으로 반영할 선거구 제도, 제3자에 의한 선거구 획정 제도, 유능한 정치인을 키워내고 정당 차원에서 책임지는 공천 제도 등을 위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은 코앞에 닥친 총선에서 자질 없는 후보들을 유권자가 직접 걸러내야 한다. 이번 선거처럼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된 상태라면, 소속 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경제를 주름지게 할 지역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말자.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다. 선택의 결과가 심히 엄중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社 說

총선 전 투표하면 선거 당일 놀러갈 수 있다

올해 4·13총선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 아무 데나 찾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인 4월 8일(금)과 9일(토) 이틀간이다. 본투표(4월13일)가 주소지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 반면 사전투표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투표일이 사흘로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본투표 당일 사정이 있거나 여행을 계획했다면 사전투표제를 활용할 때 미리 투표를 하면 좋을 것이다.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소에 가서 전용 단말기로 통합 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하면 된다.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2014년 6·4 지방선

거 등에서 적용된 바 있다.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3511곳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다음달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투표제는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와 각 당의 득리가 맞물릴 경우 다음 달 총선 투표율도 2008년(46.1%), 2012년(54.2%)에 비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1여(與-더야野)’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아무튼 사전투표제는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도입 제도인 만큼 유권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선관위도 전국 단위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전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불붙은 호남적통 경쟁...막말 비방은 삼가야

4·13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국민의당 등 각 정당은 본격적인 득표전에 대비해 권역별로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전열을 점검하는 등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경합도 본격화되어 올랐다. 특히 호남 본거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당은 연일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원색적인 막말도 불사하는 바람에 벌써부터 과열로 치닫는 분위기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호남 대변자를 자처하며 국민의당을 향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이 어느 한 특정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편승, 야당 분열이 생겨났다”고 비난했다. 더민주를 탈당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호남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당 임내현 선대부 상황

본부장은 김 대표에 대해 “국보위 전력으로 광주에 깊은 상처를 주고 햇볕정책 훼손 발언으로 야당 정통성마저 부인한 사람이다”라고 응수했다. 또 “광주가 야권 분열을 인정해 야당사에 열독을 남겨선 안 된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글서 못된 짓만 하다가 오직을 풀러 온 늑은 하이에나처럼 무례하기 짝이 없다”라고 맞받았다. 점점 잦아지는 막말들의 횡행은 보는 유권자의 마음을 불편하다. 그렇지 않아도 잇따른 공천 잡음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막말들로 인해 그나마 선보였던 공약은 묻혀 버리고 정치 무관심만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덧말 이전투구로 야권 공멸과 함께 호남 자신들까지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삼손 비방전에 현혹될 정도로 지역민의 수준을 낮게 보았다면 오산이다. 유권자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참신한 정책과 비전으로 땀땀하게 승부를 겨뤄야 할 것이다.

NGO 칼럼

경청(傾聽), 경청(敬聽) 그리고 침묵



이 계 양  
광주YMCA 이사장·문학박사

‘경청’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경청(傾聽)과 경청(敬聽)이 있다. ‘경청’(傾聽)은 ‘귀를 기울여 주의해 들음. 귀달아 들음’을 의미하고, ‘경청’(敬聽)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을 뜻한다. ‘기울다’는 ‘생각이나 어떤 상황이 한 쪽으로 쏠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기울이다’는 ‘기울다의 자동사로 주의, 힘, 정성 따위를 한쪽으로 모으다’라는 의미다. 또 경(傾)의 자해(字解·글자에 대한 해석)는 ‘사람이 고개를 한쪽으로 비틀어지게 짓고 있으니 기울어지다’이며, 경(敬)의 자해는 ‘진실한 마음으로 채찍질 하면서 훈계하는 분을 모시니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청에서의 ‘청(聽·들을 청)’의 자해도 두 가지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耳)가 으뜸(正)이며, 들을 때는 열기(+)의 눈(目)을 움직여 하나(一)의 마음(心)을 주시하는 것처럼 들으라’라는 것과 ‘눈(目)과 귀(耳)와 마음(心)으로 들으면 상대방은 왕(王) 같은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경청’(傾聽)은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해 주의하고 힘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 듣기임을 알 수 있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와 말과 한숨과 낚두리 등일 것이고,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얼굴표정과 태도와 손짓, 몸짓 등일 것이며 마음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은 격정과 근심, 기쁨과 슬픔, 진실과 거짓 등일 것이다. 따라서 ‘경청’(傾聽)한다는 것은 눈과 귀와 마음을 융합하여 상대방과 통전(通全)하는 것이다. ‘以聽得心’(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자해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데에 있다’는 말이 있다. 삼성가의 이견희 씨가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휘호도 이 ‘경청’(傾聽)이라고 한다. 헨리 나우엔은 “듣기는 꼭 개발되어야

하루 살아가고 있다. 저마다 ‘내 말 들어 달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만 넘쳐나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공허한 메아리만 난무할 뿐이다. 그래서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만 가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사회 도처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의 모습이 만연해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사납고 고약하다. 참 안타깝기만 하다. 결국 경청(傾聽)이 눈과 귀와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이라면 이것이 곧 경청(敬聽)아니겠는가. 경청(敬聽)한다는 것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채찍질하면서 훈계하는 분을 모시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이니 ‘침묵’과 한 몸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청(傾聽)하는 일과 경청(敬聽)하는 일, 나아가 침묵하는 일은 눈과 귀와 마음을 모두 기울여 주는 것 즉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쌓으며 침묵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진실로 경청(傾聽)하는 것은 경청(敬聽)하는 일이며 이는 침묵하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국민의 선량(選良)이 되고자하는 분들이여! 경청하시라!

기 고

광주의 봄은 꿈과 미래를 심는 계절



노 원 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나무의 건강을 고려할 때 나무를 심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수목생리 측면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른 봄 얼었던 땅이 풀리면 될 수 있는 때 나무의 눈이 트기 전에 심는 것이 좋다.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요즘은 나무식재 기술과 관리능력이 발달돼 아주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시기에 상관없이 나무를 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

는 추세다. 식목일은 지난 1946년 광복 직후, 정부가 국민식수 운동을 통해 국토를 푸르게 하고 국민의 ‘나무 사랑정신’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올해로 제71회를 맞은 식목일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행사로 치러진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식목에 가장 적합한 상황을 고려, 별도의 일정을 잡아 식목일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시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원 황룡강 제방 ‘빛고을 산들길’ 1.3km 구간에 목련 320주와 수수꽃다리 1600주를 심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지라도, 그 나무가 열여 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숲의 풍요는 한 그루의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군가 오래 전에 심은 나무가 우거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늘을 주고,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이 봄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미래세대를 위해 잘 가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 한 가구당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연 평균 6.85t으로, 매년 62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어야 상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숲에서 연간 4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2900만t의 맑은 산소를 생산해낸다고 한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9조원에 이르러 국민 한 사람 당 216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혜택 외에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숲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는 무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는 희망을 심고 꿈을 이루는 선도적인 도시이다. 지난해 세계를 감동시켰던 2015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그렇고, 세계로 열린 아시아 문화 발전소인 아

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를 세계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전자, 관광업, 금융, 자동차 부품 등의 주력 산업이 가세하면서 문화·생산도시로서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고의 노동생산성 확보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광주시는 청년이 풀어나오는 도시로 변하고 있으며,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가고 있다. 지금 광주는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생산 기반을 다지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 시로의 도약을 위한 자동차밸리를 비롯 문화콘텐츠 밸리, 에너지밸리 등 3대 미래먹거리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더불어 함께 행복을 미래를 얘기하는 광주가 되어 한다. 광주가 심고 광주가 가꾸면 이루어진다. 이 봄 우리가 꿈꾸는 풍성한 미래의 숲을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할 때이다.

**無 等 鼓**

정석(定石)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인정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놓는 법’을 일컫는 바둑 용어이다. 그 ‘정석’이 참고서의 이름에 등장한 것은 1966년이다. 모두를 한 번쯤 들여다 봤을 ‘수학의 정석’이라는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다. “나는 이 책을 지음에 있어 이러한 점들에 바탕을 두고서 제도가 무식함 이든 객관적이든, 문제 수준이 높든 낮든, 크게 구애됨이 없 이 적어도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모두 기울였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면서 중·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에 대해 설명한 뒤 “이 책이 제군들의 정애를 위한 좋은 벗이 되기를 빌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1981년 저자가 설립한 고교에 입학한 기자는 이 책을 선물로 받았다. 이사장은 자신이 쓴 이 책 세트에 일일이 서명을 해 신입생 전원에게 전달했다. 당

시 이 책은 학교에서 교재로도 사용됐는데, 이과를 선택한 후 수학 I 외에 수학 II를 배우며 일명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돼 버린 학생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도 ‘수학의 정석’에는 청운의 모듬을 한 번쯤 들여다 봤을 ‘수학의 정석’이라는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다. “나는 이 책을 지음에 있어 이러한 점들에 바탕을 두고서 제도가 무식함 이든 객관적이든, 문제 수준이 높든 낮든, 크게 구애됨이 없 이 적어도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모두 기울였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면서 중·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에 대해 설명한 뒤 “이 책이 제군들의 정애를 위한 좋은 벗이 되기를 빌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1981년 저자가 설립한 고교에 입학한 기자는 이 책을 선물로 받았다. 이사장은 자신이 쓴 이 책 세트에 일일이 서명을 해 신입생 전원에게 전달했다. 당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                               |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06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
| 편집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우편물 유통 10,000원 내외 500원       |                                |
|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                               |                               |                                |